



KEIMYUNG BRIDGE

Creative Academic Magazine 계명대학교 소식지

2024 · Fall+Winter · VOL.82



KEIMYUNG BRIDGE



Colorful 계명

- 04 세계로 나아가는 계명대학교
- 08 하나 되는 계명
- 12 KMU FRONTIER 도풍투이 동문
- 16 빛나는 순간 김세은·곽도은 동문

계명 Story

- 20 Pa;stival 계명대학교 125주년 기념 학생문화주간 (Passion+Festival)
- 28 계명 사유 나도! 디토 소비
- 30 RE;SPECT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만규 동문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동문
미술작가 박종규 동문

Together 계명

- 38 KMU COLUMN [건강기고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40 AROUND KMU
- 46 AROUND DONGSAN
- 48 KMU DONATION

발행인 신일희
발행처 계명대학교 대외협력처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053-580-6031~4 **FAX** 053-715-2014
E-mail hongbo@kmu.ac.kr
발행일 2024년 11월
편집 계명대학교 대외홍보팀
기획·디자인 상상146 053-352-0314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한 계명대학교의 오늘과 내일을 잇는 <KEIMYUNG BRIDGE>
 이번 82호에서는 다양한 학술연구와 도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낸 계명대학교의 눈부신 성과를 조명합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학생들이 가꿔온 비교과 활동,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봉사활동 등 계명대학교가 만들어가는 가치를 담았습니다. 모두가 손잡고 하나 되는 다채로운 계명대학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
 베트남 유학생
 동문회 대표
 도풍투이



16 2024 미스그린코리아 김세은·곽도은



26
 계명대학교 125주년 기념
 학생문화주간



30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만규 동문



32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동문

Fall+Winter 2024 VOL.82

한데 어울리어 조화로운 '다채로움'.
 계명대학교의 다채로움은 전 세계 학생들이 계명 안에서 하나 되고, 이를 통해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를 키워냅니다.
 125년의 무궁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 계명을 거쳐간 수많은 동문들이 <KEIMYUNG BRIDGE> 82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2024년을 채운 아름다운 하모니

미래를 만드는 소중한 오늘

Opening the Light ————— to the World



‘세계를 향해 빛을 여는 대학’ 바로 계명대학교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진 계명대학교 캠퍼스는 또 하나의 지구촌을 연상케 한다. 전체 재학생 약 2만 3천 명 중 외국인 유학생은 약 3천 명으로 13%의 비율을 자랑하는데, 이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제적 환경은 계명대의 학문 교류의 성과를 나타내며,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 데에 밑거름이 된다.

세계를 향하는 뜨거운 열정

더 큰 꿈을 펼치려면, 세계로 나아가는 계명대학교



오랜 기간 꾸준히 이룬 성과로 계명대학교는 국제적인 교육기관이 될 수 있었다. 1979년, 전국 최초로 외국학 대학을 설립하고 대만국립사범대학교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해외 여러 자매대학들과 협약을 맺어 재학생들이 더 넓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1988년에는 총장 직속으로 국제부를 설치하여 대학의 글로벌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95년에는 아시아기독교대학연합(ACUCA) 회장교로 임명되며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1998년에는 국제학생교류프로그램(ISEP)에 가입해 여러 분야에서 학술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갔다. 2008년에는 회장교로 재선임되어 총회와 학생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세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다.

2013년에는 독일문화원을, 2019년에는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KOICA)를 교내에 유치하며 글로벌 연구의 중심 대학으로 자리 매김했다.

현재는 65개국 452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캠퍼스 내에서도 외국어와 외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외국어 전용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숙사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소통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해외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를 생활 속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고,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기르게 된다.

How global is Keimyung University?

- Statistical Indicators -

2024년 하반기 기준

외국인 학생 재학 현황



외국인 교수 재직 현황



국적 구성



교류 현황





학생들이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계명대학교에는 구성원들이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그리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구, 학술, 강의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학생들은 계명대학교에서의 시간을 통해, 어디에서나 본인의 능력을 맘껏 뽐낼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매력에 푹당 빠지고 한국 학생들은 새로움과 만나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한다.



① 한국의 매력에 빠지다

계명대학교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문화에 모두가 녹아들 수 있도록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먼저 소개할 '탐방 프로그램'은 이국땅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체류 및 생활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거나 지역을 탐방함으로써 한국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024년 한 해, 유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한 활동들을 알아보자.

캠퍼스 라이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에는 '외국인 유학생 농촌 문화 체험활동'이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 간의 원활한 교류와 친목을 도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지만, 특히 대구 근교 농촌 지역(다산 딸기 조합 농원)을 체험하며 한국의 지역 문화 이해도를 높였다. 딸기밭에서 웃음 가득한 분위기 속에 딸기를 따고 모종도 심은 뒤, 마지막에는 직접 만든 딸기 와플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월 말에는 1박 2일로 모빌리티 캠퍼스의 카라반에서 '외국인 신·편입생 개강맞이 환영 및 생활 적응 프로그램'이 있었다. 다양한 국가에서 새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는데, 유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계명대의 여러 지원사업도 소개하며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다 함께 숙박하며 해가 진 저녁에는 촛불을 켜놓고 소원도 빌며 서로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이었다.

'지역 문화 탐방 프로그램'은 4월 말, 중간고사로 지친 유학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손꼽히는 유명한 여행지 중 하나인 전주에 방문하여 동물원과 한옥마을을 구경하며 유학생들은 학업의 스트레스는 잠시 잊고 유학 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여름방학을 앞둔 6월 초에는 '외국인 유학생 플로깅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 앞산을 산책하며 쓰레기도 줍는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체력 증진, 지역 환경 미화, 친목 도모 등 유익한 시간을 통해 유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잘 스며들 수 있었다.

② 새로움과 만나다

매년 여름 방학 기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해 'Bridge to KEIMYUNG Camp'가 시행된다.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캠프를 통해 서로를 '잇는' 것에 중점을 두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낯선 타국에서도 성공적으로 학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로나 이후 2023년부터 재개되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관계자들도 계명대학교로 초청하여 입학설명회 및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한국의 대학교에 대한 이해도 상승을 통해 향후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명대학교로의 유학을 기대할 수 있다.

계명대 입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예비 캠퍼스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학업에 앞서, 어떻게 강의를 이루어 지는지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빠른 한국어 습득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수업을 진행하며, 유학생 자치회 조직 및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한국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학생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내셔널 헬프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본국의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는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타국 생활에서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 받을 수 있다.





③ 모두가 하나 되다

계명대는 외국 유학생을 단순히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는 대학들과 협력해 재학생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 예로 2007년 설립된 '계명 아담스칼리지(Keimyung Adams College, KAC)'가 있는데, 4년간의 대학 정규 과정을 모두 영어로만 강의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전용 단과대학이다.

KAC에는 국제경영학과, 국제관계학과가 있으며 석사 외 국인 교수님의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성적 장학제도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KAC 학기 특별 장학제도', 'UC Berkeley 해외 연수', '국내외 인턴십', '제2외국어 교육',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인재를 길러낸다. 실제로 학생들은 졸업 후 국제기구(UN, UNESCO, UNICEF, IMF, WTO 등), 정부 기관, 다국적 기업, 대사관, 국제변호사로 진출한다. '복수학위제'란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과 재학 중인 대학교 두 곳에서 각각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양한 전공을 배운다는 점에서 복수전공과 비슷해 보이지만, 복수전공은 하나의 학위에 두 가지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임에 반해 복수학위제는 각 전공에 대해 별도의 학위를 수여받기에 취업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계명대 KAC는 미국의 복합 투자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워런 버핏'의 모교인 '네브래스카 링컨 대학'과 복수학위제를 운영 중이다. 학생들이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미국 '디지펜공과대학'과의 복수학위제를 통해 '디지펜게임공학과'를 신설했다. 2034년까지 유효한 이 학위제는 게임 분야에서 한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한다. 올해 가을에는 동산의료원(원장 조치흠) 개원 125주년을 기념하여 (사)동산의료선교복지회(회장 조광범)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해외의료선교봉사를 다녀오기도 했다.

현지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위내시경 검사와 기타 진료를 진행해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용기를 주었다. 1990년부터 시작된 계명대 해외의료선교봉사는 현재까지 약 700여 명의 의료진이 세계 여러 곳의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해 왔다. 이들의 의료 봉사를 통해 해외의 아픈 이들이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작은 관심이 이끈 교육자로의 삶



Do Phuong Thuy

한국문화정보학과 04학번



한국을 사랑해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명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도풍투이(Do Phuong Thuy) 동문. 그녀는 계명대학교 한국문화정보학과(現 한국어교육학과)에서 학사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베트남 유학생 동문회 대표로서 계명대학교 창립 125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대학발전을 위해 기부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도풍투이는 중학생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드라마 '가을동화'를 감명 깊게 보고 한국어학과에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베트남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에 합격한 후,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그녀는 한국어로의 유학을 꿈꾸게 되었다.

“2000년대 초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제약이 많았죠. 게다가 당시에 저는 휴대전화, 노트북이 없었기에 학교에 문의 전화를 할 때는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이메일을 보낼 때는 한국어 자판이 있는 PC방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기에 해외 유학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유학을 갈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시했던 것 같아요.”

당시 그녀는 베트남의 교육부를 통해 한국의 많은 대학교 중 계명대학교 한국문화정보학과(現 한국어교육학과)의 장학 프로그램 알게 되었다. 기존에 2년간 다녔던 하노이국립외대에서 성적 관리를 열심히 한 덕분에 2004년 계명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다고, 능동적으로 공부했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처음으로 낯선 타국 생활을 시작하며 두려움도 있었지만, 도풍투이는 학과 교수님들과 동기 친구들 덕분에 즐겁게 한국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전공 수업이 어려워서 힘들었을 때, 친구들이 남아서 같이 공부해 주고, 학과 교수님께서 늘

격려를 해주시며 그녀에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덕분에 끝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동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었다.

“한국에 오기 전, 베트남에서부터 여러 매체나 책을 통해 한국의 '정' 문화를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한국 분들이 저에게 항상 정겹게 다가와 주어서 타국 생활이어도 외롭지 않았고 가족과도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도풍투이는 현재 베트남의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한국문화학부의 교수와 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육자로서 그녀가 베트남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즐거움'이다. 무언가를 배울 때에 '즐거움'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모국어가 아닌 또 다른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재미있는 과정이라고 스스로 되뇌면 결국은 자유자재로 타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녀는 수업 시간에 항상 계명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추억은 그녀에게 여전히 소중한, 20대 청춘을 가득히 채운 인생의 한 페이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명대학교 창립 125주년 기념행사는 학교에게도, 그녀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었다.

“학교 측의 관심과 지원으로 2023년 2월에 계명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동문회가 결성되었어요. 덕분에 유학생 동문들은 졸업 이후에도 여러 가지 뜻깊은 활동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학교를 위해 무엇이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나누는 삶은 저뿐만 아니라

유학생 모두가 계명대학교에서 배운 중요한 가치니까요. 학교에 대한 애정과 앞으로 있을 후배들의 양성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게 되었고 마음을 받아주셔서 매우 감사해요.”

타국에서 홀로 공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점이 많은데, 후배들은 그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라는 그녀이다. 그래서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집필하여 본인이 배운 지식과 정보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다.

현재 유학생 동문회 회장으로서 계명대학교와 베트남 유학생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도풍투이. 베트남 유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유학생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 세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하며, 그날을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발 벗고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





‘계명’을 통해 세계로!

학창 시절은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기에 애뜻하고 소중하다. 당시엔 행복한 시간인지 몰랐지만, 졸업 이후 사회인이 되면 더욱 그때가 그리다. 이 감정은 비단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들도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이전보다 동창회가 줄어든 시대라 해도, 계명대학교 유학생들은 여전히 함께 모여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한다.

‘Homecoming’, 직역하면 ‘집으로 돌아오다’는 뜻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시 학교에 모이는 일을 뜻한다. 계명대학교는 2024년, 창립 125주년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 Home Coming Day’를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했다. 베트남, 중국인 졸업생 등 총 48명의 동문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끽했다.

유학생 동문들은 각자 본국 사회에서 일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바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내어 홈커밍데이에 참여하여 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홈커밍데이는 계명대학교 캠퍼스 투어, 태권도 체험, 한복 입기, 부산 여행 등 한국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기획 의도는 유학생들과 계명대학교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한국의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또한 유학생 동문과 그의 가족들에게 모교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모국에 가셔도 계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월에는 베트남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에서 계명대학교 베트남 동문회를 결성했는데, 베트남 동문 45명이 참석해 동문회 운영 방안 및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베트남 동문회 초대 회장인 도퐁 투이(Do Phuong Thuy, 하노이국립외대 한국어교육학과 교수)는 7월 25일 125주년 홈커밍데이 방문을 기념하며 계명대학교 측에 발전기금 145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2024년 기준 계명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비수도권 대학 중 전국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뽐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3주기 인증대학 유지 및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에 선정되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율, 중도 탈락률, 교육 이수율, 공인 언어능력 등의 평가 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의 우수 인재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홈커밍데이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계명대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모국에 가셔도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



한복 및 다도 체험



태권도 체험



환영 행사

계명대학교 125년 창립 125주년 외국인 유학생 HOME COMING DAY

2024. 7. 25.(목)

성서캠퍼스 운동장



대학발전기금 전달식

빛나는 미소로 환경을 푸르게, 2024 미스그린코리아



김세은

중국어중국학과 18학번

곽도은

실용음악음향과 23학번

높은 가을 하늘이 푸르게 펼쳐진 날, 계명대학교 동천관에서 '2024 미스그린코리아' 영광의 주인공 김세은, 곽도은 동문을 만나보았다. 아름다운 가을의 날씨와 어울리는 두 동문은 현재 모델로도 활동하며 매스컴에 얼굴을 비추기도 한다. 전국적인 미인대회에서 진·선 모두가 계명대학교 학생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되는데 그녀들은 어떻게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을까. 많이들 궁금하지만 생소할 수 있는 미인대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01. 반갑습니다. 두 분 소개해주세요.

김세은 안녕하세요. 저는 2024 미스그린코리아 진의 영예를 안은 김세은입니다. 중국어중국학과 18학번으로 입학해 현재는 졸업을 했고, 웨딩·한복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곽도은 저는 선으로 수상한 실용음악음향과 23학번 곽도은입니다. 1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인데요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 반가워요. 저도 모델 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02. 미스그린코리아는 어떤 대회인가요? 출전하게 된 계기는요?

김세은 미스그린코리아는 대회 입상자에게 각종 월드대회에 한국을 대표하여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미인대회예요. 대회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깨끗한 환경 만들기의 의미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환경 보호를 앞장서서 실천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회입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재학 시절 홍보대사 '아리미' 활동을 했는데요, 의전행사 중에 미스코리아 학원 대표님께 캐스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대회인 '미스 대구'에 출전했고, 그때 '미스그린코리아'라는 대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마침 저는 예전부터 플로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저의 관심사와 대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맞아떨어지기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곽도은 모델 활동을 하던 도중 사진작가님께서 저에게 미스코리아에 나가보는 게 어떻냐고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참가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스 대구부터 출전하게 되었고, 이후에 또 다른 대회를 알아보면 중에 미스그린코리아는 친환경 홍보대사를 뽑는 대회니까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플로깅 : 스웨덴어에서 '줍다'를 의미하는 'plocka upp'과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03. 미인대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김세은 미인대회라고 하면 '그냥 예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미스그린코리아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어요. 이외에는 학원에서 스피치, 워킹, 포징 등을 배웠고요. 스피치는 자기소개 개념으로 40초 정도 진행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저를 보여줘야 되니까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준비할 것이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다른 참가자들과 친해지고 아직까지도 연락할 만큼 좋은 인연이 된 것 같아서 참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의 과정이지만 서로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동료로 생각하면서 옆의 친구를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곽도은 저도 대회를 통해 좋은 동기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요. 앞서 대답해 주신 것들을 저도 준비했었고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참가자랑으로 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실용음악 전공이다 보니 피아노를 직접 연주했어요.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을 많이 읽을수록 면접이나 심사 때 대답을 더 매끄럽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4. '미스그린코리아'라는 전국적인 대회에서 두 분이나 계명대학교 동문이라는 점이 놀라워요. 당선 후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김세은 대구에 미인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계명대학교에 예쁜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부심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두 명이나 대회에 당선되면서 주변에서 "역시 계명대!"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계명대 출신으로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곽도은 저는 미스그린코리아 준비 기간이 짧았던 편이어서 주변에서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자."라고들 해주셨는데, 막상 대회에서 선으로 수상하니까 지인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자랑스러워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전공 교수님도 저에게 축하한다고 연락해 주시고 SNS에 스토리도 올려주셨어요. 또 전국의 진선미 중에 2명이나 대구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05. 대회에 참가하고 수상하는 과정에서 배운 점이 있었나요?

김세은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과 서울에서 합숙하는 동안 다들 너무 예쁘셔서 외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을 튼튼하게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자신감을 가지고 대회에 참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등수가 매겨지다 보니 상처받는 일도 분명 있거든요. 심사 기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다잡는 훈련을 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내면이 건강한 친구들이 결국은 그 기간을 지혜롭게 견디더라고요.

곽도은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시기 때문에 대회를 준비하며 국제적인 환경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지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으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06. 두 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요?

김세은 가장 '나' 다울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다들 개성이 넘치고 각자의 매력으로 모두가 아름다운데, 본인만의 장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어필하여 당당한 모습을 보였을 때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저는 대회 때 가장 '나'다운 '솔직함'을 드러냈어요. 면접이나 심사 때 보통 긴장한 티를 내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저 지금 긴장해서 떨리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솔직하고 당당한 부분을 심사위원분들께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곽도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아름다움도 알게 되고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07. 두 분께 계명대학교는 어떤 의미인가요?

김세은 계명대학교는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곳'이에요. 입학하고 나서 좋은 동기들, 선배들을 만났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분들을 보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할 수 있었어요. 미스그린코리아에 나가게 된 계기인 학교 홍보대사 '아리미' 활동을 하게 된 것도 학과 선배의 추천 덕분이었어요. 제가 크고 작은 일들을 할 때 항상 응원도 받았고요. 제가 열심히 살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곽도은 저에게 계명대학교는 두 번째 대학교인데요. 앞서 다녔던 학교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캠퍼스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뜻깊고, 다들 아시다시피 계명대학교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강의 들으러 올 때마다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현재는 휴학 중이지만 앞으로 3년간 더 공부할 내일도 너무 기대돼요.

지역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우리 계명대학교 125주년 기념 학생문화주간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계명대학교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다양한 문화를 새롭게 창조했던 1주일, 그 현장을 집중 파헤치다

건축물 모형 만들기 및 전시
주관 공과대학 | 2024. 9. 25.

교웃놀이 (교육학과 + 웃놀이) | 주관 사범대학 | 2024. 9. 23.



초청가수 '투어스(TWS)'의 공연 | 2024. 9. 27.



콜라 브랜드 맞추기 | 주관 자연과학대학 | 2024. 9. 26.



클래식 연주와 함께하는 플리마켓 | 주관 음악공연예술대학 | 2024. 9. 24.



2024년 가을, 계명대학교는 창립 125주년을 맞이하여 9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Keimyung Culture Festival Week'를 진행
했다. 제61대 계명대학교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주관한 이
페스티벌은, 성서캠퍼스 대운동장 및 교내 전역에서 열려 수많은 교내
재학생 및 유학생이 함께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각 단과대학의
학생회가 공익 캠페인(전동킥보드 안전 캠페인, 금연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 라이프를 홍보했다. 학업의 스트레스
는 잠깐 내려놓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시간을 소개한다.

계명의 가을동화, 5일간의 이야기

9월 23일 월요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에는 중앙동아리 소속 학생들의 무대 공연과 학생회가 주관하여 각자의 끼를 마음껏 뽐내는 가요제, 댄스제가 열렸다. TV 프로그램 '고등래퍼 2'에 참가하여 이름을 알린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 '애쉬 아일랜드'와 '슈퍼스타 K7' 출신의 가수 '신예영'이 초청가수로 와서 무대를 꾸몄다. '애쉬 아일랜드'는 독보적인 래핑으로 학생들을 매료시켰고, '신예영'은 감동을 선사하는 깊은 보이스를 캠퍼스에 울리며 축제의 첫날을 풍요롭게 장식했다.

9월 24일 화요일

음악공연예술대학이 주관한 클래식 연주회로 품격 높은 음악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었고, 체육대학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왕중왕전에서는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뜨거운 순간을 만들어냈다. 또한, 수많은 히트곡을 자랑하는 싱어송라이터 '우디'와 '쇼미더머니 8' 출신의 래퍼 '김승민'이 감미로운 목소리와 즐거운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9월 25일 수요일

플리마켓과 공익 캠페인(전동킥보드 안전 및 금연 홍보)이 열려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동안에도 안전 수칙을 잊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과대학 부스에서는 '건축물 모형 만들기 및 전시'를 통해 재학생들이 직접 미니 건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날에는 인기 아이돌인 '트리플에스'와 그룹 '비투비'의 멤버 '이창섭', 래퍼 'CAMO'가 초청가수로 방문했다. 이들의 공연은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었으며, 캠퍼스를 흥겨움으로 물들였다.

9월 26일 목요일

목요일에도 공익 캠페인이 열렸으며 인문국제대학에서는 '고전 퀴즈'를 통해 우리가 평소 잊고 지내던 고전 문학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콜라 브랜드 맞추기'처럼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되어 편안한 분위기 속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 'K팝스타 2'에서 준우승을 거머쥐고 이후에는 아이돌로 활동한 '방예담', 그룹 '아이오아이' 출신의 '전소미', 올해 데뷔하여 좋은 곡으로 사랑받는 그룹 '리센드'가 천상의 멜로디로 목요일의 무대를 채웠다.

9월 27일 금요일

일주일간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 날에는 국제협력팀이 주관한 '상상 컬러별 축제'가 열렸다. 가장 '글로벌'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모두 모여 다채로운 시간을 즐겼다. 요즘 뜨는 인기 그룹인 '투어스'와 '라잇썸', 밴드 그룹 '엔플라잉'이 방문하여 마지막 날을 화룡점정으로 만들어 주었다.

부서별 일자 및 장소별 주요 행사

| | | | |
|-----------------|---------------------|----------|-----------------------------|
|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행정팀 | 9.23.(월) ~ 9.24.(화) | 바우어관 앞 | 계명 ESG 캠페인 계명 ESG 체험 활동 |
| 장학복지팀 | 9.23.(월) ~ 9.24.(화) | 바우어관 앞 | 장학안내 |
| 계명인성교육원 | 9.24.(화) ~ 9.25.(수) | 바우어관 앞 | 인성교육 캠페인 인성드라마 수상작 상영 |
| 지산학인재원 행정팀 | 9.25.(수) ~ 9.26.(목) | 바우어관 앞 | 현장실습 설명회 |
| 진로취업지원팀 | 9.23.(월) ~ 9.27.(금) | 진로취업센터 앞 | 맞춤형 고용서비스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
| 국제협력팀 | 9.27.(금) | 소운동장 | 외국인 유학생 상상컬러별 축제 |

2024년 '계명대학교 125주년 학생문화주간'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더 뜻깊은 1주일이었다. 총학생회, 중앙동아리, 각 단과대학과 더불어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은 '계명 ESG 캠페인'과 체험 활동을 통해 현 사회에서 ESG가 지니는 중요성을 알렸다. 지산학인재원은 LINC 3.0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장학복지팀과 진로취업지원팀도 다양한 장학금 제도와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홍보했다. 먹을거리와 볼거리에 더하여 쓸쓸한 정보도 가득했던 '계명대학교 125주년 학생문화주간'을 통해 계명 공동체의 결속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



상상 컬러벨



‘계명대학교’와 ‘KT&G 상상 univ’가 야심 차게 준비한 ‘상상 컬러벨*’축제!

축제의 마지막날인 9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성서캠퍼스 소운동장에서 컬러벨 축제가 열렸다.

대학교 재·휴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계명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찾아와
함께 어울리며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컬러벨: (컬러풀 Colorful + 글로벌 Global)

컬러벨 페스티벌 콘텐츠

- 컬러 파우더 홀리 축제** 인도 홀리 축제를 한국에서도 즐긴다! 피부색,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컬러 파우더를 뿌리며 서로의 축복을 빌 수 있다.

홀리 축제의 의미? 색채의 축제라고도 불리는 홀리 축제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색상으로 물들며 서로 한데 모여 다채로운 하나의 집단이 됩니다. '홀리(Holi)'는 카스트 제도를 파괴한 '화합'의 장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가루를 서로 뿌리는 일에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고, 이를 통해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컬러 가루(Gulal)는 쌀이나 옥수수 등 곡물의 전분으로 만들어져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해요.
- 세계 음식 체험 부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
- 세계 축제 체험 부스** 유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국 축제 체험하고 컬러파우더까지 받아볼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 체험

컬러벨 축제는 단순히 교내에 국한되지 않고 계명대학교가 지역사회, 나아가서 전 세계와 화합하고 문화적 역량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축제가 계속되길 기대한다.

오래도록 기억될, 창립 125주년 기념 학생 기념품 배부



패드 파우치



후투티 키링



에코백



기념품 배부 현장

계명대학교는 창립 125주년을 맞아 구성원 모두가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도약을 함께 다짐하는 취지로, 전 재학생에게 특별 기념품을 나눠 주었다. 기념품은 학생들이 오래도록 학교를 기억할 수 있도록 실용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준비했으며, 원활한 배부를 위해 예체능, 이공, 인문사회 계열별로 날짜를 나누어 진행했다. 대외적으로는 학교를 널리 홍보하고 대내적으로는 교내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며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2024년 계명대학교가 야심 차게 준비한 기념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체능 계열

구바우어관 정문 앞 2일간
6.17.(월) ~ 6.18.(화)

음악공연예술대학, 체육대학
*미술대학 별도 배부(대명아담스관 102호)
6.24.(월)~6.25.(화)

이공 계열

구바우어관 정문 앞 3일간
6.19.(수) ~ 6.21.(금)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인문사회 계열

구바우어관 정문 앞 5일간
6.24.(월) ~ 6.28.(금)

인문국제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Keimyung Adams
College, Tabula Rasa College

배부 대상: 2024.6.14.(금) 10:00AM 기준 재학생(학부생)에 한하여 배부

기념품은 학교를 상징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패드 파우치는 네이비와 아이보리의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었고, 에코백에는 125주년을 기념하는 숫자 '125'가 새겨져 있어 실용성과 기념성을 더했다. 특히, 학교의 상징인 교조 '후투티'를 캐릭터화한 귀여운 키링은 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나도! 디토 소비 (Ditto)

‘시간은 금이다’. 그 어느 때보다 효율을 추구하는 시대, 어떤 상품의 구매를 결정하는 데에도 기회와 시간을 아껴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이들이 구매한 제품을 보고, 이를 따라 소비하는 ‘디토(Ditto)* 소비’는 이러한 경향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트렌드이다.

*Ditto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노래의 제목으로 유명해진 단어로, 라틴어에서 파생돼 ‘나도, 나도 마찬가지로’라는 뜻을 가졌다.



모방 소비와는 다른 ‘디토 소비’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할 때,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지도 앱의 소개 내용이나 방문 후기를 확인하고 갈 곳을 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타인이 이미 다녀간 곳은 어쩐지 더 믿음이 가고,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따르기 때문이다. 디토 소비 또한 이러한 검증되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누군가를 따라 한다는 점에서는 얼핏 ‘모방 소비’와 비슷해 보이지만 살펴보면 이와는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모방 소비’가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라 하는 비합리적인 소비라면, 디토 소비는 자신이 ‘주체성’을 가지고 가치관과 취향,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등이 비슷한 특정 인물의 소비를 좇는 것이다.

소비 자체를 자기 정체성의 표현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에서도 디토 소비는 모방 소비와 구별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캠페인 굿즈를 애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디토(Ditto)’의 뜻인 ‘나도’처럼, 어떤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성에 ‘나 또한 그러하다’는 동의의 메시지를 소비로 표현하는 셈이다.

‘추종’과 ‘선망’, ‘신뢰’의 표현

WHO? 누가 샀지?

과거만 하더라도 제품이 ‘어느 브랜드’의 것인지가 중요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제품을 ‘누가’ 사용하는지가 포인트다. 그 대상이 나와 취향이 비슷하거나,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방문하는 공간도 나의 마음에 쏙 들 가능성이 높을 거라 여기기 때문이다. 자신이 팔로우하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일상 아이템이나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자주 마시는 차를 함께 애용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들은 그들의 취향을 엿보는 동시에 라이프 스타일까지 공유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WHAT? 어떤 콘텐츠에서?

영화, 드라마, 유튜브 등의 콘텐츠에 나오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장소를 방문하는 이른바 ‘콘텐츠 디토’도 있다. 작품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등장인물들이 입고 나오는 옷, 사용하는 물건 등을 따라서 소비하는 것이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이후 달고나의 판매가 급증하거나 초록색 체육복이 유행했던 일,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인 강릉 주문진읍이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된 것 등이 콘텐츠 디토의 예시라 할 수 있다.

WHERE? 어디서 사지?

쇼핑몰, 온라인 쇼핑 앱 등 커머스에서 고객에게 제시하는 제품군을 따르는 소비 행태이다. 우리가 어떤 커머스에서 유형별 1위를 한 제품이라면 신뢰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같다. 요즘에는 편집숍 앱에서도 추천 탭이 활성화되어 있어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에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이것은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상품 큐레이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자기 취향을 잘 알아준다는 인상을 받아 관심과 애착이 한층 더 강해지게 된다.

진정 ‘나’다운 디토 소비를 위해선

소비 결과에 대한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까지 되어주는 디토 소비, 상황과 취향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첫째,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 것.**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디토 소비의 본질은 주체성을 갖고 자신의 생각과 취향을 표현하는 것이다. SNS에서 핫해서, 혹은 유명한 누군가가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나 쓰임에 상관없이 소비하는 것은 모방 소비와 다를 바가 없다.

**둘째,
내가 디토하는 대상이나 관련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품이 실제 유행이나 품질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바이럴된 것일 수도 있다. 본인의 관심과 취향에 부합하는 물건이라면 실제 구매 사이트의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능하면 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물건을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셋째,
나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와 제품의 가성비 및 장단점 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구매하기.**

환경보호를 위해 애용되어야 할 텀블러가 또 다른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순간의 관심이나 흥미만으로 디토 소비를 할 경우, 과소비나 낭비에 빠지기 쉽다. 현재 나에게 유사한 제품이나 대체 가능한 물건이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넷째,
디토 소비의 유행 시기는 굉장히 짧다.**

모든 유행이 그러하듯, 디토 소비는 뜨겁게 끓어오르는 만큼 금방 식기도 한다. 필요나 실용성과 더불어 자신이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디토 소비는 어떤 유행이나 대상에 대한 ‘반응’이자 ‘동의’이지, 무조건적인 ‘순응’이 아니다.



계명은 성장의 밑거름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이만규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2006년 제5대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현재 제9대 대구시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연임하고 있다. 평소 지역 청년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지려 노력 중인 그는 인터뷰를 계기로 소중한 매개를 얻고 계명대학교와 또다시 인연을 맺어 반가운 마음을 비쳤다.

경험과 자산

이만규 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개인적 포부와 주변의 독려가 그를 정계로 이끌었다. 그에게 계명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은 조직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소양을 쌓는 기회가 되었다.

지방의회는 소통, 협력, 갈등 해결과 같은 조정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익힌 리더십의 본질적인 의미와 역할, 소통 및 갈등 해결 방법 등은 현재 몸담고 있는 지방의원직, 특히 대구 시의회 의장으로서 의정 활동을 수행해 가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

학습 과정과 별개로 최고경영자과정 중에 만난 동료들과의 교류 또 한 그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 지역 현안 과제가 풀리지 않아 고민할 때, 평소 생각지도 못했던 묘안과 해답이 그 당시 동료들과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만규 의장은 계명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대구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한 힘'이라고 표현했다.

미래를 향한 도전, 계명대학교

이만규 의장에게 계명대학교는 개인적 인연이 깊은 애정의 공간이다. 정계 입문 전 광고 분야에 종사하며 오랜 기간 동산의료원의 광고 기획을 맡았으며, 의정활동 후에는 '3·1 만세 운동길', 동산의료원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사업 등을 지원하며 계명대학교와 인연을 이어갔다.

그에게 계명대학교는 '젊음', '미래'의 상징이다.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캠퍼스를 활기차게 거니는 젊은 학생들의 모습은 그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대학이 단순히 지식을 쌓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청춘이 인생의 길을 찾아 나서는 중요한 여정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계명대학교를 '미래를 향한 도전의 장소'로 기억하며, 학생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응원하고자 하는 염원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

이만규 의장은 대구 미래를 밝힐 가장 중차대한 현안 사업으로 '대구 경북신공항'과 '달빛철도' 건설을 꼽는다. 시의회는 각종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장을 찾는 등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민의를 결집해 왔다. 또한 영호남 공동 프로젝트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양 지역 간 인적·

경제적 교류를 하며 남부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꾸준히 민생 현장을 방문 중이며, 시민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다.

지역 민생경제를 복원하고 대구 미래 신산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활기찬 대구로 탈바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고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분이 맞이할 사회는 불확실성과 도전의 연속일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도전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에 나를 움츠러들게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대구시의회도 여러분의 앞날에 빛을 밝혀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학과
박성만

34년째 지역을 위한 삶을 사는 박성만 동문은 올해 경상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며 경북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한다.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의회에서 만난 그는 수더분한 미소로 인터뷰어를 맞이했다.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도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즐거움을 잃지 않는 그가 걸어온 길이 궁금하다.

사회학과 박성만 동문은 계명대학교 졸업 이후 20대 어린 나이에 당시 함께 뜻을 나누었던 박찬중 변호사와 신정치개혁당을 창당하고,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최연소로 입후보하였으나 현실 정치의 벽에 막혀 낙선하였다. 이후 도의원과 국회의원에 낙선과 당선을 반복하며 현재 5선의 도의원으로서 제12대 경상북도 후반기 의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90년부터 정계에 입문하여 현재 34년 차 정치인 이니, 지방정치의 산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 온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20대에 차렸던 정당은 3년간 활동하다 해산했고, 이후에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도전하다 보니 힘든 일이 더 많았다고 한다. 특히 지방자치는 특정 정당이 우세하다 보니 소속이 없던 그가 겪었을 외로움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다.

힘든 과정임에도 박성만 동문은 어떻게 계속해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시간을 거슬러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재학시절, 그는 사회학 공부를 하며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 남들보다 더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당시 출판된 사회과학 관련 서적은 거의 다 읽기도 했다. 그렇게 사회에 대해 깊이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에도 관심이 생겼다.

계명대학교에는 박성만 동문 외에도 정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졸업생들이 많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랏일을 하는 졸업생 동문들을 보면 그는 같은 계명인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사회를 가르쳐주었던 교수님,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 산악동아리 활동 등 계명대학교 안에서의 모든 시간은 그가 지금 정치하는 데에 큰 자산이 되었다.

“우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잘 살아보세’ 구호를 외쳤던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잖아요. 근면한 지역으로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죠. 오늘 인터뷰 전에도 우리가 경북의 혼과 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일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경북에서 살아가는 감사함에 대해서도 새롭게 되짚어보게 되었고요.”

이젠 정치인에게도 자기 PR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박성만 동문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알린다. 예전에는 뉴스 매체를 통한 홍보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개인이 곧 뉴스이자 기자가 된다. SNS 시대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도 정치인에게 필요한 능력 중 하나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용어도 많고 트렌드도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지만, 시대에 발맞춰 변화를 캐치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매일 세상을 공부한다.

“현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죠. 이 외에 희생, 희망, 책임 이 세 가지가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희생은 보답을 바라지 않아야 하고, 국민이 좋은 세상을 희망할 수 있게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솔선수범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말의 무게를 알고 한마디 할 때마다 늘 신중해야겠죠.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경북의 일을 하며 이 세 가지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 더 뿌듯하고 보람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지역민들이 처한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을 때 그보다 기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저도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지는 때에,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에 편중해 있는 것이 박성만 동문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보며, 그들이 다시 지방으로 돌아와서도 잘 살 수 있게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고 싶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 전체가 살고, 지방에 청년이 있어야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어느 지역에서나 청년들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대 지방 정치인들의 큰 과제이다. 고향을 사랑하는 애乡심을 심어주어 경북에도 청년의 시대가 도래하길 바라는 그는.

경북과 청년의 미래에 끊임없이 고민하는 박성만 동문은 현재를 살아가는 계명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한다.

“가슴속에 ‘계명’이라는 속명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저에게 계명대학교는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었던 소중한 곳이에요. 학창 시절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그 순간을 열정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술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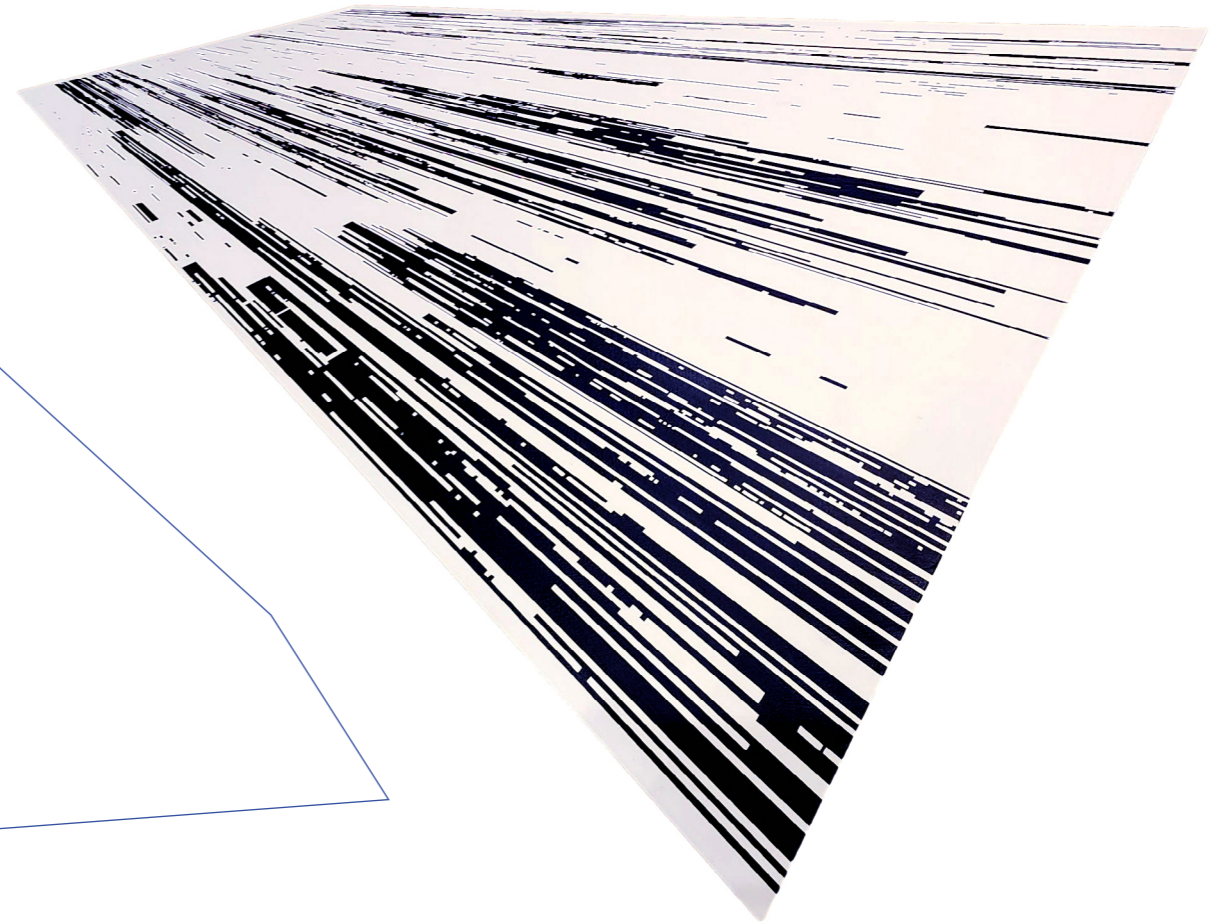
독특함으로 캔버스를 채우는 박종규(J.Park) 작가는 졸업 이후 프랑스로 넘어가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복합매체학 학·석사 학위와 Poste Diplome을 취득했다. 더 넓은 세상에 뛰어들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자 했던 그는 디지털 노이즈를 소재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술인이 되었다. 대구 미술의 위상을 높인 박종규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서양화과 84학번

박종규



수직적 시간, 캔버스 위에 아크릴, 2023, Vertical time, Acrylic on canvas, 2023, 90x110cm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계명대학교 84학번으로 입학해 서양화(現 회화과)를 전공한 박종규입니다. 유학 이후 대학 강사를 거쳐 현재는 회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대구 서구의 한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화면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소재로 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Q. 계명대학교 졸업 후, 프랑스로 유학을 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계명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어린 시절 막연히 가지던 유학의 꿈을 바탕으로, 더 큰 세계 무대에서의 경험을 원하게 되어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 시기에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관심이 있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프랑스 작가인 클로드 비알라의 '회화의 평면성' 논리가 제가 생각하는 미술의 가치와 잘 맞아 프랑스로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대학 생활과 유학 준비를 병행했어요. 프랑스어학원을 다니며 언어 공부도 했습니다. 계명대학교를 다니면서 만들었던 작업이 프랑스에서의 작업으로 이어지고, 또 그 작업의 연장선으로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Q. 계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셨는데요.
재학생에서 강사 신분으로 학교에 다시 오게 되셨을 땐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친다는 건 엄청난 감격이죠. 외국에서 배운 것들을 후배들에게 알려 줄 수 있어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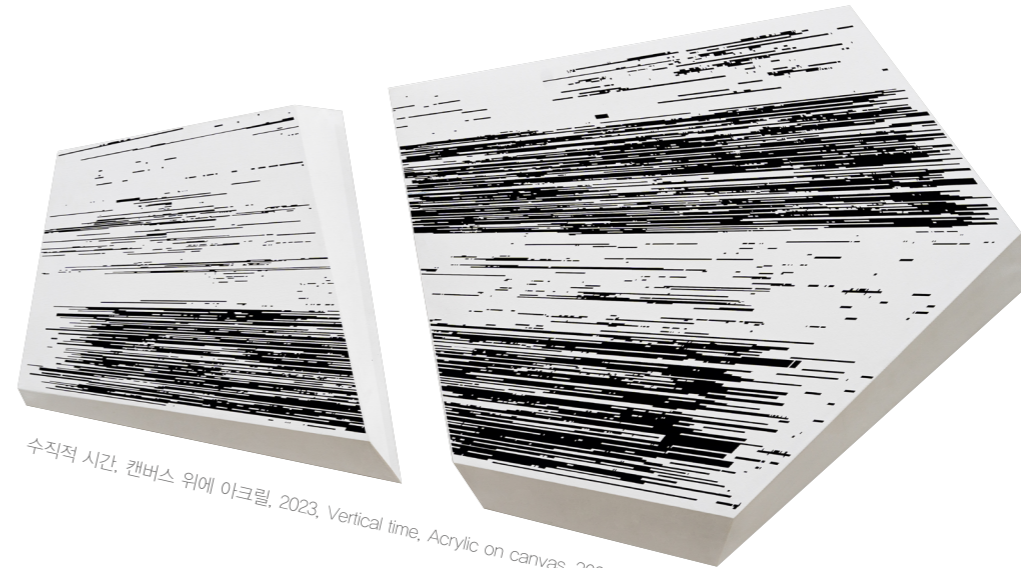
한국과 프랑스의 미술 교육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림을 그리는 방식부터 하나 하나 다 가르쳐주지만, 프랑스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림 그리는 방식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대신 수많은 대화를 통해 사고의 폭을 확장 시켜주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이러한 교육 방식을 계명대 수업에서도 많이 적용하려고 했어요. 4시간짜리 수업이면 그중 1시간은 학생들과 대화하고, 남은 시간 동안 스스로 작업을 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또 시간과 작업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교수님, 강사님들과 차별된 점이었던 것 같아요.

**Q. 디지털 화면상의 노이즈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어요.
소재가 참신한데 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바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작업을 진행하였나요?**

노이즈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된 건 2007~2008년부터예요. 노이즈는 디지털 화면 속에서 오류를 의미하는 부정적 가치잖아요. 하지만 이걸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단위인 픽셀의 개념으로 파고들어 생각하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잘 정돈된 아름다운 형식으로 느껴졌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틀린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과연 어디까지 틀리고 잘못된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죠. 그렇게 노이즈를 작업의 소재로 활용하게 됐어요. 정상의 법률에서 배제된 노이즈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며 녹여낸 거예요. 그리고 저는 회화적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프린트로 찍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인팅이라는 회화적 노동이 있을 때 미술적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대신, 마치 기계가 한 것처럼 완벽하게 조금의 실수도 허용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만들되 그림에서 인간적인 면모와 인간의 온기가 없는 것처럼 작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수직적 시간, 캔버스 위에 아크릴, 2023, Vertical time, Acrylic on canvas, 2023, 167x130cm



수직적 시간, 캔버스 위에 아크릴, 2023, Vertical time, Acrylic on canvas, 2023, 95x185cm

Q.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가치가 있나요?

저는 그림에 '자족적 생명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작업을 완료한 후에 제 손을 떠나 다른 전시 공간으로 향했을 때는, 그 그림과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변 환경에 따라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작품의 의미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의도를 설명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틀에 갇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림은 스스로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죠. 저는 어떠한 의도와 방식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지만,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마다 다른 해석과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전달되었으면 하는 것은 그저 미술을 통한 삶의 풍요로운 정서와 자유로운 상상력이 아닐까 싶어요.

Q. 작가님에게 계명대학교는 어떤 의미인가요?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계명대학교는 저에게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대학 생활을 할 때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계명대학교는 작가를 배출하는 학교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아요. 유학을 다녀온 후에 강사 생활을 할 때도 교수님들은 저에게 다시 파리에 가서 작가 생활을 하라고 하셨어요. 강의와 작업을 병행하다가 지금은 다시 작가로서 온전히 몰입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교수님들의 판단이 맞았던 것 같고 그 말을 해주신 게 고마워요. 제가 예술가로서 성장하는데 발판이 되기도 했어요.

Q. 후배 미술학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인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작가로서 성장하는 데에 지방은 아무래도 기회의 문제가 있어요. 이걸 극복하는 건 매우 어렵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작품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존재와 작업을 알리는 방식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그림을 만들더라도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수많은 방식으로 나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해요. 계명대학교 후배들도 작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본인의 작업만큼이나 나를 알리는 데에 있어 부단히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낭 담석

과식 후 복통과 소화불량, 발열이 지속된다면...?

신경인 교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소화기내과



■ 담낭 담석이란?

담석(gallstone)은 담낭(쓸개)에 생기는 담낭 결석, 간 밖에 위치한 담도에서 생기는 간의 담관 담석, 간 안에 위치한 담도에서 생기는 간내 담관 담석 등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이 중 담낭 담석이 가장 흔하여 담석을 담낭 담석과 혼용하여 사용한다. 담낭은 보통 서양 배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간의 우측 아래 부분에 부착되어 있다. 전체 길이는 약 7cm, 폭은 3cm 정도이고, 30~50mL의 담즙이 찰 수 있다. 간에서 만든 담즙은 담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며, 담낭은 그 도중에 담즙이 저장되는 창고의 역할을 한다.

■ 담석 발생 기전, 위험인자

담즙의 하루 총 분비량은 500~600mL 정도이며 구성성분이 결정되어 돌처럼 굳어져 담석이 발생하게 된다. 담석 성분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나뉜다.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담석의 유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10~20% 인구가 담석을 가지고 있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여 60대에는 30%, 80대에는 60%까지 증가한다. 콜레스테롤 담석은 여성, 중년(40대 정도), 다출산, 비만, 과체중에서 비교적 많

이 발생하며, 급격한 체중 감소, 약물(에스트로겐, 경구 피임제 등), 담낭 운동장애, 고칼로리 또는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한 경우에도 잘 생긴다. 색소성 담석은 용혈성 빈혈, 간경변증, Gilbert 증후군, 담관 감염 등에서 자주 나타난다.

■ 담낭 담석의 증상은?

대부분의 담낭 담석은 증상은 없으며 우연히 복부초음파검사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특징적인 증상은 주로 우상복부 또는 명치 통증이며 오른쪽 등, 어깨 쪽 통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흔히 과식 후 또는 고지방 음식을 먹은 후 발생하며, 보통 1~4시간 동안 지속 후 점차 호전된다. 복부팽만감, 구역질, 소화불량 등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다. 6시간 이상 통증 지속, 발열, 오한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급성 담낭염, 급성 담관염 또는 급성 췌장염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진단은 일차적으로 복부 초음파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복부전산화단층촬영(CT), 내시경 초음파, 자기 공명담췌관조영술(MRCP) 등이 필요할 수 있다.

■ 담낭 담석, 치료해야 되는가?

담낭 담석의 치료는 증상 유무, 치료 방법의 효과와 합병증,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된다. 무증상 담낭 담석은 경과가 양호하여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지만 증상이 있는 담낭 담석은 수술적 치료인 담낭절제술이 원칙이다. 현재는 짧은 수술 시간 및 입원기간, 적은 통증 등으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증상 있는 담낭 담석 치료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합병증 없이 경한 증상만 있거나 작은 결석에서는 내과적 치료인 경구 담석 용해 요법을 시도하지만 치료 성공률이 높지 않고 재발률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담낭 담석은 일괄적인 치료가 아니라 전문가와 의하여 환자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한 치료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하다.



켈로이드

가려움, 통증, 당김과 함께 붉게 부풀어오는 흉터

정운혁 교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성형외과



■ 켈로이드란?

켈로이드는 병적흉터로 피부손상 범위를 넘어서 흉터조직이 증식하는 질환이다. 켈로이드는 가려움, 통증, 당김을 동반하며 붉게 부풀어오는 흉터이다.

켈로이드(Keloid)의 어원은 1806년 Alibert가 처음 사용한 cheloide에서 유래했으며, 이것은 개의 집게발을 의미하는 chele에서 유래한다. 실제로 흉곽에 발생하는 켈로이드는 아령 모양에 끝이 개의 집게발처럼 날카롭게 뻗어나가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켈로이드는 암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수술과 보조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며 일정 부분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 켈로이드의 원인

발생원인은 아주 다양하여 특정인자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알려진 발생원인 중 하나로 인종이 있다. 어두운 피부를 가질수록 발생이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흑인에 게서 가장 흔히 발생한다. 전신적 요인 중에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있다. 켈로이드는 주로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며, 실제로 켈로이드는 임신 중에 악화되고 출산 후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켈로이드 발생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흉터에 지속적인 긴장이 가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움직임에 의해 자주 늘어나는 부위에 빈번히 발생한다. 주로 관절, 흉곽, 견갑골 및 허부 복부가 호발 부위이다. 이외에도 가족력과 고혈압도 원인으로 꼽힌다.

■ 치료와 관리의 중요성

켈로이드 보존적 치료로 실리콘겔시트 적용, 스테로이드 주사, 종이에이프를 이용한 긴장감소, 압박치료(자석치료), 항암제병변내주사, 레이저 치료가 흔히 적용된다.

단독 치료로도 켈로이드의 두께와 흉반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되었다. 그리고 실리콘겔시트는 창상에 가해지는 장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경과가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수술은 보통 단발성이며 적절한 피부여유가 있어 봉합이 용이할 경우에 시행한다. 수술의 보조적인 요법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방사선치료는 창상회복 중에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주로 견갑부위, 가슴, 귓볼부위의 수술 후에 보조적으로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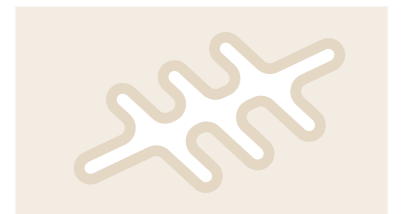
흔히 환자분들은 수술만 하면 켈로이드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술 후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켈로이드는 단순한 수술 또는 치료로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 이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역시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환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며 관리를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18~24개월 이상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켈로이드를 정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 켈로이드의 예방

켈로이드를 진단받았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흉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켈로이드는 일상 생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상처 치유 과정을 더디게 하는 비만, 흡연, 음주 등의 조절이 필요하다. 또한, 상처 염증을 방지하고 항생제 연고 등을 통한 상처 관리도 필요하다.



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계명대 교수 저서 7종

한·일 공감각 오노마토피어

장진영 지음 | 계명대학교 출판부

한국사회의 현실과 하버마스의 사회철학

사회와 철학 연구회 지음 선우현 기획·편집 | 씨아이알

정조의 군주상 허상과 실상의 경계

김백철 지음 (이학사)

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Scale up)의 이해와 방법론

곽원섭·김창완 지음 | 베이킹북스

치과의사가 시작하는 수면무호흡치료
기초 지식과 구강내장치 치료의 실천

Miyachi Mai 저 신영민 역 | 대한나래출판사

신경근육질환 Textbook of Neuromuscular Disorders

대한신경근육질환학회

신경계 중환자의학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 범문에듀케이션

01

계명대 교수 저서 7종, '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내 초판 발행 학술도서 중 인문학 67종, 사회과학 114종, 한국학 39종, 자연과학 74종 등 총 294종의 도서를 '2024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계명대 교수 저서 7종이 포함되었다.

인문학
분야

- ① 장진영 타블라라사 칼리지 교수 저서 『한·일 공감각 오노마토피어: 감각에서 감정·심리로』
- ② 이재성 타블라라사 칼리지 교수 저서 『한국사회의 현실과 하버마스의 사회철학』



사회과학
분야

- ① 김창완 벤처창업학과 교수 저서 『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Scale up)의 이해와 방법론』
- ② 김백철 사학과 교수 저서 『정조의 군주상: 허상과 실상의 경계』



자연과학
분야

- ① 의학과 신영민 교수 역서 『치과의사가 시작하는 수면무호흡치료: 기초 지식과 구강내장치 치료의 실천』
- ② 의학과 홍정호·석흥열·박형중 교수 저서 『신경계 중환자의학』
- ③ 의학과 석흥열 교수 저서 『신경근육질환』



02

계명대, 제47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겨루기 전국태권도대회 종합우승 쾌거



계명대학교는 8월 28일(수)부터 31일(토)까지 전북 고창군립 체육관에서 열린 제47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남자 대학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도자상을 수상한 정재정 계명대 태권도부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종합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급별 성적은 한민성(남, 19)이 -54kg급에서 1위, 이인혁(남, 19)이 -80kg급에서 1위, 전현민(남, 20)이 +87kg급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고유찬(남, 20)은 -74kg급에서 3위를 기록했다.

03

계명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성과 평가에서 A등급 받아

계명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일반재정지원)' 제2주기 2차년도(2023)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 인센티브 50%(74.35억 원)를 받아 올해 총 146.2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는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제2주기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차 연도에 걸쳐 사업비를

배분하고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확정된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계명대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를 향해 나아갈 글로벌 인재, 각박한 세상에서 따뜻한 이웃이 되어줄 감성형 인재, 어떤 모습이든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04

계명대 토목공학과, 2024 국제내진대회(IDEERS) 전세계 2위 쾌거



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와 복합구조연구실(CSL) 팀이 지난 9월 19일(목) 대만 국립지진센터에서 열린 국제내진대회(IDEERS 2024)에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과 경쟁하여 종합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대회는 영국문화원, 대만국립대학, 대만지진센터가 공동 주최하며 2001년부터 시작해 20년 이상 이어져 온 권위 있는 대회다. 고등학생부, 대학부, 대학원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내진 설계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CSL팀은 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됐다. 권용혁(4학년, 25세), 박준하(3학년, 26세), 송진우(3학년, 24세), 구용운(3학년, 23세)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은 장준호 교수가 지도했으며, 장 교수는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계명대 CSL팀은 제한된 재료인 목재스틱, 종이, 고무밴드만을 이용해 지진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브레이싱

(bracing)과 댐퍼(damper)를 설계한 것이 이번 대회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비대칭 구조를 요구하는 대회 규정 속에서도 수차례의 실험과 해석을 통해 최적의 보와 기둥 댐퍼 배치를 완성해, 800gal의 중력 가속도에도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팀의 리더인 권용혁 학생은 "처음 모델이 진동대 위에서 쉽게 넘어졌을 때는 막막했지만, 이론과 실험을 거듭하며 개선되는 모델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내진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교수 장준호 교수는 "계명대 인텔리전트 건설시스템 핵심지원센터의 진동대를 활용해 6개월 동안 꾸준히 준비한 결과가 결실을 맺었다"며 "매년 새로운 내진 기술을 연구해 학생들과 함께 대한민국 내진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05

계명대 사범대학, 2024년 '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 사업' 선정

'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 사업'은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었는데, 계명대가 2024년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총 20개 사업단(연합체 4개, 중등 단독형 16개교)이 선정돼 총 4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계명대는 특히 '중등 단독형'으로 선정돼 2024년부터 1년간 1억

7500만 원의 국고 지원금을 확보했다. 김신혜 사범대학장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맞춰 교육 패러다임 또한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교실 미래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선도할 역량 있는 예비교원 양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6

계명대, '2024 액션러닝 대상' 학교 부문 대상 수상



계명대학교가 8월 23일(금) 한국액션러닝협회와 로컬콘텐츠중심대학이 주최한 제20회 대한민국 액션러닝 콘퍼런스에서 '2024 액션러닝 대상' 학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액션러닝'은 조직이나 개인이 러닝코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경험을 동시에 얻도록 돕는 방법론이다. 계명대 교육혁신처는 액티브 러닝 교수-학습 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액션러닝을 교육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영호 교육혁신처장은 "액티브 러닝 교과목 개발 및 인증을 통해 액션러닝을 포함한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확산하는 교수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교원과 학생이 함께 수업을 혁신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07

계명대, 국내 최초 영어 전용 한국학 석사과정 복수학위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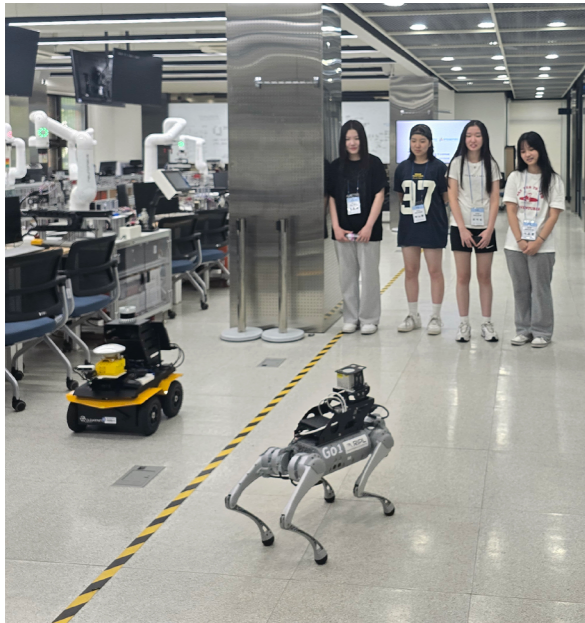


계명대학교는 2023년부터 한국어교육학과와 폴란드 야기엘론스키대학교 한국학과와 함께 영어 전용 '1+1 한국학 석사과정 복수학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한국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됐으며, 양교의 한국학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 강의를 맡고 있다. 이 복수학위제 프로그램은 야기엘론스키대학교 대학원에서

1년, 이어서 계명대 대학원에서 1년을 수학한 후 양 대학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계명대는 세계 65개국 452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 협정을 맺고 있으며, 학술적 및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66개국에서 온 3,100여 명의 유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08

계명대 대경강원권역 R-WeSET 사업단, GEW 행사개최 성료



계명대 대경강원권역 R-WeSET 사업단(단장 이수진 교수)은 대구·경북·강원지역 여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이공계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2024 Girls' Engineering Week(GEW)'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역 마블 공학여행'이란 독특한 주제로 진행된 이번 GEW는 대경강원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학 체험 프로그램으로 7월 23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안 9개교에서 선발된 60명의 여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직접 공과대학을 방문해 요오드를 이용한 주기적 색깔 변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화학공학 등 흥미로운 실험·실습을 체험했다. 또한, 화학공학과 조신희 교수의 신기술 반도체 분야에 대한 특강과 함께 계명대의 주요 인프라인 로봇기반 자동화 및 자율 시스템(KAROL) 실습실과 첨단실험센터를 견학하는 시간도 있었다.

GEW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고 한국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과 대경강원권역, 충청권역, 동남권역, 호남제주권역 R-WeSET사업단이 공동 주최하는 여중고생 공학 체험 행사다. 이 행사는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로 탐색을 돕고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09

계명대, 웹툰과 박경은 학생, ACC 민주·인권·평화 웹툰 공모전 우수상 수상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박경은(여, 웹툰과 2학년) 학생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최로 열린 'ACC 민주·인권·평화 웹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경은 학생의 수상작 '희미하게 들리는'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의 절망과 희망을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풀어내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경은 학생은 수상 소감에서 "웹툰과 수업을 통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고, 교수님과 동기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의미 있는 주제를 잘 그려낼 수 있었다.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지닌 작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명대 웹툰과는 대구 지역 최초의 4년제 웹툰 관련 학과로, 2023학년도에 신설되어 매년 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김윤희 계명대 미술대학장은 "학교 수업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제작되어 매년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10

계명대,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비교과 WEEK' 열어



10월 7일(월)과 8일(화), 계명대 성서캠퍼스 바우어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교육혁신처 주관으로 비교과 교육에 대한 대학 사회의 관심 증대와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학생 우수사례 발표회' 세션에서는 2024학년도 1학기 활동 공모형 K-Circle 프로그램에서 유형별 최우수상을 받은 7팀이 활동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비교과 우수사례 전시' 및 '비교과 홍보부스'가 열려 참가 학생들에게 교내의 유익한 프로그램 정보와 역량 강화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영호 계명대 교육혁신처장은 "계명대는 매년 1400건 이상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자기 계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과 실천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

계명대,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형 연구개발(C&D) 기획 컨설팅' 개최

9월 3일(화) 계명대 모빌리티캠퍼스 모빌리티관에서 열린 C&D 기획 컨설팅은 R&D, 인력양성, 특허 및 기술정보, 마케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은 산학협력단 교수, 변리사 등 총 8명의 전문가가 담당했으며, 5개 분야로 나눠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주)비투솔루션 최비공 연구소장은 "대구 지역 기업과 배터리 생산에 대한 산학 협력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높은 수준의 정보와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12

계명대와 조선대, 영호남이 함께하는 '미래모빌리티 대학교류캠프' 열어

계명대학교와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지난 8월 22일(목)과 23일(금) '계명대-조선대 미래모빌리티 대학교류캠프'를 조선대에서 진행했다. 이 캠프에는 양 대학의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미래모빌리티 관련 융합전공 학생 40명이 참가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캠프는 모빌리티 산업 현장 탐방과 체험, 학생 간 교류를 통해 대학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미래모빌리티 지역정주형 특성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은대영 학생(계명대 로봇공학과 3학년)은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정해운 학생(조선대 컴퓨터공학과 3학년)은 "기아자동차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계명대 학생들과의 교류가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01

계명대 동산병원, 환자경험평가 전국 1위



계명대 동산병원이 9월 5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3년(4차) 환자경험평가 결과에서 상급종합병원 중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평균 점수 94.28점을 획득하며, 전국 상급종합병원 평균(86.13점)과 전체 참여 기관(82.44점)의 평균 점수를 크게 웃돌아 환자중심 의료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은 간호사·의사·투약 및 치료과정·병원환경·환자권리보장·전반적 평가의 6개 항목으로, 계명대 동산병원은 의사영역 2위(92.5 점, 1위 92.63점)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전부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깨끗하고 안전한 병원 시설 및 환경과 더불어, 의료진의 존중과 예의를 바탕으로 한 환자중심 의료가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02

대구·경북 최초의 근대식 병원
'제중원' 원형 재현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125년 전 동산의료원의 전신인 '제중원'을 준공하고, 6월 14일(금) 제중원 미당에서 '초기 제중원(濟衆院) 원형 재현 봉헌식'을 개최했다. 제중원 원형 재현 사업은 동산의료원 개원 1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899년도 제중원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의료원의 설립정신을 계승하고, 대구 근대 의료의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3년간 추진되었다.

이 날 봉헌식에는 김남석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장,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 조치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 등 내빈과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류규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강병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 많은 외빈이 자리해 제막식을 진행하는 등 제중원 원형 재현을 축하했다.



03

계명대 간호대학 100주년 맞아
역사관 개관 등 기념행사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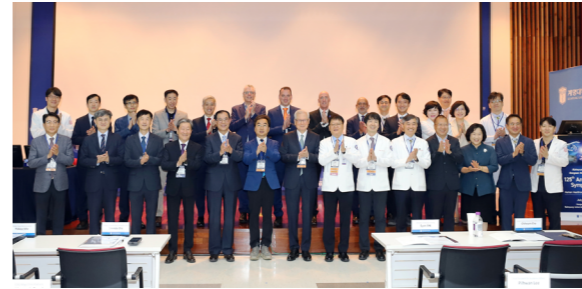


계명대 간호대학이 1924년 설립된 이후, 2024년 올해 역사적인 10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30일(목)부터 6월 1일(토)까지 전강구관(간호대학) 일대와 존슨홀에서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10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남석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장,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 박승호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조치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김혜영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장, 박숙진 간호대학 동창회장 등 내빈과 최연숙 국회의원, 전인영 메폴 전산초 학교교육재단 이사, 김증임 한국간호과학회장,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장 등 많은 외빈이 자리했으며, 국내 및 해외 동문들이 함께 간호대학의 100주년을 축하했다.

04

'계명대 동산의료원 개원
12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7월 4일(목)부터 5일(금)까지 양일간 계명대 동산병원 행소대강당과 병원 일대에서 '계명대 동산의료원 개원 12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Human Healthcare X Digital Evolution'을 주제로, 스마트 환경을 기반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계명대 동산의료원의 미래 125년을 준비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각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 산업 발전 등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기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등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를 총 망라하며 큰 규모로 진행됐다.

06

'美 뉴스위크 세계 최고의 전문 병원' 소아과 분야 3년 연속 선정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9월 17일(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발표하는 '2025년 세계 최고의 전문 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5)' 소아과 분야에 이름을 올리며, 3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지난해 136위에서 올해 133위로 순위가 소폭 상승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1등을 유지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2024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의 전문병원' 소아과 분야에도 선정되는 등 세계 유수의 병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계명대 동산의료원 소아 치료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07

계명대 동산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전산 시스템 통합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동산병원에 이어 경주동산병원까지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서, 산하 3개 병원의 전산시스템 통합을 완료했다.

이번 경주동산병원의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모두 동일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게 됐다. 이를 통해, 각 병원별 협진 시스템 및 유기적인 진료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05

대구동산병원, 경북권(대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기공식 개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7월 18일(목) 대구동산병원 별관 1층에서 '경북권(대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남석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장,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 조치흠 계명대 동산의료원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계획 및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및 커팅식 등을 진행하며, 경북권(대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을 함께 기원했다. 한편, 경북권(대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총 72억 원(국비 36억 원, 지방비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구동산병원 별관 1~2층을 리모델링하여 건립된다. 연면적 약 1,100평 규모로 낮병동 20개 병상을 갖추며, 50명 이상의 외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



받은 행복을 두 배로 전하는 가치

대전 엑스포 근처, 갑천변의 반짝이는 윤슬과 맑은 가을 하늘이 한눈에 담기는 사무실에서 이재영 동문을 만났다. 감사함을 아는 미덕이 더욱 필요한 시대인 만큼 그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계명대학교에서 보낸 청춘에 감사하며 모빌리티 캠퍼스 조성기금에 동참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도시공학과 80학번
(주)케이쓰리아이 대표

이재영

Q.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도시공학과(現 도시계획학과) 80학번이자 학과 1회 졸업생인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동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석사, 독일 도르트문트대학에서 공간계획 석사과정을 거친 후 박사과정을 수료했어요. 그 시기에 대전시의 광역종합정보센터 설립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는 케이쓰리아이(구 대전광역종합정보센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산업 등 여러 분야의 콘텐츠에 XR(확장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일을 합니다.

Q. 계명대학교의 모빌리티 캠퍼스 조성을 위해 2천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부를 하게 되셨나요?

계명대학교 재학 시절, 김정환 교수님(前 계명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現 계명대학교 명예교수)께서 학교를 정말 사랑하시고 저희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껴주셨어요. 저희는 그런 훌륭한 교수님을 항상 따랐고,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애교심이 생겼어요. 누가 남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학과 연구실에서 밤 11시까지 공부도 하고 동기들과 추억도 쌓고 주말에도 학교에 가서 시간을 보냈을 정도였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저는 그동안 계명대학교로부터 받은 사랑도, 혜택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후배들에게 좋은 일이면 저도 함께하고 싶었죠.

Q. 과연 대표님의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대표님께 '계명대학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계명대학교는 저에게 '마음의 고향'이에요. 고향에 가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언제든 돌아갈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잖아요. 졸업한 지 약 40년이 지났지만, 저에게 계명대학교는 항상 마음 한편을 차지하는 소중한 존재예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졸업생들이 많을 거예요. 현재 계명대학교가 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졸업생들이 사회인이 되어 다시 모교에 사랑을 보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Q. '나눔'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가 있다면요?

단순히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나눔을 행하며 살진 않죠. 다만 평소에도 본인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때 언제든지 베풀 수 있다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기부할 수 있다 생각해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여러 방법을 통해 격려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넉넉한 상황이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이 나눔을 가능하게 해요.

Q. 모교의 발전을 위해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와 같은 80학번 때만 해도 중간에 직업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현대는 변화와 역동성이 큰 시대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당장 5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현재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느 학문을 배우든 졸업해서 사회인이 되면 180도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학교에 다닐 때 공부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대외활동 등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위기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타인과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지 말고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Q. 이번 기부를 통해 계명대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문들이 계명대학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 대한 애정과 후배들에 대한 관심이 라고 생각해요. 크게 바라는 것은 없지만 졸업생으로서 하나 꼽아보자면, 우리 계명대학교가 지역을 넘어서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유능한 미래의 인재들과 앞으로 완성될 모빌리티 캠퍼스를 통해 계명대학교의 더욱 빛날 앞날이 매우 기대됩니다.



모빌리티캠퍼스 조성기금 모금 안내

계명대학교 창립 125주년 및 모빌리티캠퍼스 출범 기념

“지켜온 125년의 큰빛, 비상할 125년의 계명” 비전의 길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조성기금 모금 안내

계명대학교는 2024년 1월 31일 대구시 5대 신산업과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명대학교 달성캠퍼스를 모빌리티캠퍼스로 조성하기로 하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모빌리티캠퍼스에는 향후 7년간 교육동, 연구동, 기업복합공간동 등 복합동과 UAM Vertiport를 구축해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대학을 설립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학과, 모빌리티 소재부품학과, 항공물류학과, 철도학과·융합전공 운영으로 실전형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상주 재학생 규모를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창립 125주년을 맞이한 계명대학교는 선교사들과 독지자들의 나눔과 섬김, 봉사와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125년간 지역에 큰 빛을 지켜왔습니다. 미래에 더욱 비상할 125년을 준비하고 있는 계명대학교는 '모빌리티캠퍼스'를 조성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모금 목적

- 우리 대학교 창립 125주년을 기념,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초석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모빌리티캠퍼스 조성기금 마련
-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대학교로서의 발전과 차세대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위한 기금 마련

■ 모금 단위

1구좌(1,250,000원) 이상(분할납부 가능)

■ 모금 참여 방법

약정서 작성 후 제출

■ 문의처

대외홍보팀 발전기금 담당자 (053-580-6323, 6322)

기부자의 뜻에 배를 더하다

계명더하기 장학기금 모금

2021년 8월 계명대학교는 기부금액에 매칭장학금 100%를 더해 기부자 명의의 장학기금으로 운용되는 '계명더하기 장학기금'을 신설하여, 기부자의 뜻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운용

1. 최소 장학기금 기부액 : 5천만 원 이상

2. 학교 장학기금 매칭 시기

- 일시납부 : 기부금 입금 후 1개월 이내
- 분할납부 : 회차별 분할 납부금액 1천만 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 회차별 입금 후 1개월 이내
- 장기(1년 이상) 분할납부 등 : 기부 약정금액 완납 시점 기준 1개월 이내

3. 장학기금 용도 :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4. 장학기금 운용 : 장학기금 완납 후 이자수익금으로 장학금 지급

계명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2021년도 개정 예우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 예우내용 | 구분 | 1백만 원 이상 | 사랑 | | 진리 | | 계명비사 | | |
|-----------------------|-----------------|----------|----------|----------|---------|---------|-----------|-------------|-----------|
| | | |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이상 | 3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50억 원 이상 |
| 총장명의 감사패 또는 기부증서 | 기부증서 | ● | ● | ● | ● | ● | ● | ● | ● |
| 학교달력 발송 | | ● | ● | ● | ● | ● | ● | ● | ● |
| 학교소식지 발송 | | ● | ● | ● | ● | ● | ● | ● | ● |
| 기념품 증정(기부 약정시) | | ● | ● | ● | ● | ● | ● | ● | ● |
| 도서관 이용 혜택 (도서열람 및 대출) | | ● | ● | ● | ● | ● | ● | ● | ● |
| 교육비 감면 | 계명시민교육원 (비학위과정) | | 50% | 50% | 50% | 50% | 100% (무료) | 100% (무료) | 100% (무료) |
| | 특수대학원 | | 30% | 30% | 30% | 30% | 100% (무료) | 100% (무료) | 100% (무료) |
| | 외국어학당 수강료 | | 10% | 30% | 30% | 30% | 100% (무료) | 100% (무료) | 100% (무료) |
| 학교시설 이용 시 감면 | | | ● | ● | ● | ● | ● | ● | ● |
| 명절선물(설, 추석) | | | ● | ● | ● | ● | ● | ● | ● |
| 동산의료원 이용 혜택 (본인, 배우자) | 종합건강검진 (일반) | | 50% 할인 | 1회 | 1회 | 2회 | 3회 | 5회 | 연1회 (평생) |
| |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 | | | 30%할인 | | | 100%할인 (무료) | |
| 무료주차등록 | | | ● | ● | ● | ● | ● | ● | ● |
| 장학기금 명칭 부여 | | | ● | ● | ● | ● | ● | ● | ● |
| 강의실 명명 | | | | ● | ● | ● | ● | ● | ● |
| 강당 및 홀 명명 | | | | | | | ● | ● | ● |
| 건물 명명 | | | | | | | | ● | ● |

※ 상기 예우기준은 기부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전·현직 교직원 기부자의 동산의료원, 학교 교육비 및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예우는 교직원 감면을 우선 적용

문의 : 대외홍보팀(053-580-6323)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발전기금을 기부(약정)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뜻을 존중하여 대학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납부기간 : 2024. 3. 1. ~ 2024. 8. 31.

| | | | | | | | |
|---|----------------|------------|----------------------|-----|------------|-----------|------|
| 재직 교직원 | 배재훈 | 김명수 | 이시훈 | 김상희 | 이재구 | 김성연 | 손수상 |
| 천만 원 이상 | 배창범 | 김배환 | 이열림 | 김선이 | 이정환 | 김세원 | 손우영 |
| 오천만 원 미만 | 배현균 | 김백철 | 이영숙 약학과 | 김성현 | 이지우 | 김세진 | 송운옥 |
| 김문식 | 백순현 | 김봉수 | 이인경 | 김승찬 | 이충권 | 김승철 | 신동민 |
| 김창완 | 신문교 | 김서준 | 이종길 | 김순자 | 이태희 국제통상학과 | 김억운 | 신상수 |
| 손혁 | 안숙영 | 김승완 | 이종협 | 김영찬 | 이혜정 | 김영신 | 신성아 |
| 이필환 | 유충렬 | 김승원 | 이종호 | 김영희 | 이호택 | 김영하 | 신형준 |
| 오백만 원 이상 | 윤광열 | 김영서 | 이진호 | 김인규 | 장경희 | 김윤일 | 신호철 |
| 천만 원 미만 | 윤성도 | 김영철 | 이태관 | 김주욱 | 장태욱 | 김운성 | 심두우 |
| 김범준 | 윤재우 | 김원진 기계공학과 | 장요한 | 김준호 | 전병오 | 김원진 전산개발팀 | 안재범 |
| 김선정 | 이경섭 | 김유희 | 장희권 | 김지현 | 김지현 | 김은민 | 안정훈 |
| 김승직 | 이근효 | 김재두 | 정만주 | 김지현 | 김병선 | 김진영 | 안태영 |
| 김중순 | 이로리 | 김재현 | 정병선 | 김진찬 | 정윤정 | 김진찬 | 여수정 |
| 유육희 | 이성용 | 김정규 | 정윤정 | 김창섭 | 정인철 | 김창섭 | 여백동 |
| 이영호 | 이광구 | 김춘이 | 정정용 | 김호 | 정정용 | 김호 | 오봉시내 |
| 이병로 | 이중문 | 김택수 | 정찬호 | 남궁현 | 정찬호 | 김진철 | 오세욱 |
| 이삼빈 | 이중원 | 김택수 | 정철호 | 노백호 | 조수현 | 김진하 | 오우성 |
| 이중하 | 이중희 | 김택수 | 조석현 | 박성호 | 천우광 | 김진현 | 오지훈 |
| 이중환 | 이춘호 | 박민수 | 조영식 | 박소연 | 천창익 | 김태영 | 유인식 |
| 장준호 | 임경수 | 박성준 | 천경수 | 박예자 | 최명숙 | 김표정 | 유정원 |
| 정용주 | 임충재 | 박소영 | 천호재 | 박영호 | 최보라 | 김현석 | 윤철우 |
| 조치흠 | 임태성 | 박윤주 | 최미경 | 박종명 | 최성근 | 김회관 | 윤성환 |
| 백만 원 이상 | 장석환 | 박정근 | 최봉도 | 최성희 | 최영찬 | 나유리 | 윤호경 |
| 오백만 원 미만 | 정경훈 | 박진욱 공중보건학과 | 최원석 | 최은영 | 최은영 | 남대엽 | 은은기 |
| MacLean, Stanley Stephen | 정대원 | 박희준 | 최유담 | 최은정 | 최은정 | 남희은 | 이가경 |
| 강영욱 | 정상희 | 배정우 | 최유한 | 최인식 | 최인식 | 남희은 | 이경남 |
| 고병철 | 정용진 | 백가흠 | 최이규 | 박찬호 | 박찬호 | 노상훈 | 이대호 |
| 고은경 | 정우진 | 변명환 | 최인섭 | 박창모 | 박창모 | 도영철 | 이동환 |
| 권상우 | 정찬복 | 사공창호 | 최정화 | 박홍일 | 박홍일 | 류영선 | 이동희 |
| 김권구 | 정하정 | 서영희 | 최중호 | 변성준 | 변성준 | 문근중 | 이민기 |
| 김권배 | 조범래 | 석재혁 | 최형석 | 변재웅 | 변재웅 | 민승기 | 이상영 |
| 김기엽 | 조현정 | 송형석 | 추동현 | 서미정 | 서미정 | 박경옥 | 이상혁 |
| 김기환 | 채연정 | 신동익 | 하석배 | 서봉호 | 서봉호 | 박경희 | 이상훈 |
| 김성중 | 허정명 | 신상현 | 하정철 | 서영호 | 서영호 | 박병훈 | 이소준 |
| 김신혜 | 황인덕 | 신지숙 | 한만배 | 송근유 | 송근유 | 박성태 | 이윤아 |
| 김연옥 | 황현순 | 신진교 | 한여동 | 신민혜 | 신민혜 | 박수호 | 이재룡 |
| 오십만 원 이상 | 백만 원 미만 | 안나영 | 한진협 | 안용호 | 안용호 | 박영태 | 이정호 |
| Cruz, Angelita Bautista | 안유찬 | 양봉석 | 황성욱 | 엄홍준 | 엄홍준 | 박영태 | 이준재 |
| Lach, Roman Wolfgang | 양선아 | 양봉석 | 삼십만 원 이상 | 우영욱 | 우영욱 | 박정숙 | 이준혁 |
| Lee, Janet Yoon-Sun Synn, Chaeki Freya Synn, Jienki | 양지웅 | 오세연 | 오십만 원 미만 | 유문기 | 유문기 | 박정숙 | 이진화 |
| Ziatdinov, Rushan | 우채영 | 윤대숙 | Hong, Victor Sukbong | 유병환 | 유병환 | 박종섭 | 이진영 |
| 김경문 | 윤우석 | 이기동 | 강동우 | 유승열 | 유승열 | 박진현 | 이향순 |
| 박선우 | 윤지원 | 이상철 | 강명화 | 윤태숙 | 윤태숙 | 박철용 | 이현경 |
| 박성은 | 이덕우 | 이성철 | 고성철 | 이규석 | 이규석 | 박해남 | 이현미 |
| 박세진 | 이병환 | 이선봉 | 구보순 | 이선봉 | 이선봉 | 박희진 | 이형택 |
| 박준태 | 김경미 | 이성우 | 구술아 | 이선희 | 이선희 | 박홍익 | 이화영 |
| 박찬일 | 김경호 | 이신우 | 권순철 | 이선희 | 이선희 | 배대일 | 이희진 |
| 박찬민 | 김기석 | 이수원 | 권오훈 | 이성욱 | 이성욱 | 김난희 | 임기상 |
| 박혜선 | 김도형 | 이수진 | 김경희 | 이신우 | 이신우 | 김동범 | 임운택 |
| 배재영 | 김동욱 | 이승욱 | 김규태 | 이승우 | 이승우 | 김동휘 | 임정민 |
| | | | 김무중 | 이윤석 | 이윤석 | 김보라 | 장병국 |
| | | | 김민숙 | 이은영 | 이은영 | 김상우 | 장영철 |
| | | | | | | 김성숙 | 장요선 |

| | | | |
|-----|-----|----------------|--------------------|
| 전병혁 | 서민애 | 정현목 | 이순연 |
| 정상교 | 이상인 | 삼십만원 이상 | 이은실 |
| 정수태 | 이상아 | 오십만원 미만 | 이정찬 |
| 정연식 | 이수일 | 곽병덕 | 이진택 |
| 정중호 | 이영희 | 민난희 | 이하나 |
| 정진화 | 이요환 | 안효대 | 이행미 |
| 정철우 | 이정순 | 삼십만원 미만 | 이현주 |
| 정대우 | 전상영 | 강미숙 | 이형균 |
| 정해준 | 조이성 | 강선영 | 이혜란 |
| 정훈 | 최일엽 | 김귀경 | 이환숙 |
| 조수성 | 최정식 | 김미희 | 이희주 |
| 조용수 | 홍수 | 김병희 | 장병학 |
| 조현욱 | | 김부용 | 장세영 |
| 조효은 | | 김상기 | 정승양 |
| 진미숙 | | 김성호 | 장영애 |
| 차영근 | | 김세련 | 정광일 |
| 차지민 | | 김순연 | 정선주 |
| 최경주 | | 김승현 | 정은숙 |
| 최경훈 | | 김용문 | 정인자 |
| 최두선 | | 김원일 | 정지원 |
| 최두혁 | | 김윤경 | 정창식 |
| 최선경 | | 김은경 | 정해임 |
| 최순석 | | 김은자 | 조규택 |
| 최재원 | | 김익기 | 조화숙 |
| 추윤호 | | 김정아 | 최명희 |
| 하영석 | | 김종하 | 최희희 |
| 하지연 | | 김태혁 | 최영희 |
| 한문식 | | 김혜련 | 최원희 |
| 한병진 | | 김혜순 | 최원미 |
| 허광수 | | 남병헌 | 하지연 |
| 홍수비 | | 노경희 | 하지연 |
| 홍진영 | | 류미영 영어교육지원 | 홍윤수 |
| 황대관 | | 류미영 간호교육지원 | 황순희 |
| 황일항 | | 박경화 | 유관기관 |
| 황호순 | | 박노광 | 일억 원 이상 |
| | | 박만용 | M뱅크(대구은행) |
| | | 박미경 | 일억 원 미만 |
| | | 박상형 | 마마국시 |
| | | 박새안 | 기타 |
| | | 박선영 | 일억 원 이상 |
| | | 박선희 | (재)한국장학재단 |
| | | 박순정 | (주)케이엠에프 |
| | | 박신우 | (주)케이엠에프 |
| | | 박영화 | 삼보모터스(주) |
| | | 박은주 | 삼보프라텍 주식회사 |
| | | 박재우 | 천만 원 이상 |
| | | 박창규 | 오천만 원 미만 |
| | | 박호순 | (주)화신 |
| | | 박희숙 | 천만 원 이상 |
| | | 서수미 | 오천만 원 미만 |
| | | 서인숙 | (재)대구은행 |
| | | 서인주 | 장학문화재단 |
| | | 성약전공 재학생 일동 | (재)동원문화재단 |
| | | 송영남 | (재)두산연강재단 |
| | | 송미옥 | (재)유한재단 |
| | | 안미숙 | (재)정수장학회 |
| | | 안영호 | (재)화성정학문화재단 |
| | | 여원구 | (주)삼한씨원 |
| | | 오장천 | 계명1%사랑나눔기 운동본부 |
| | | 윤성덕 | 대학교회 |
| | | 이경희 간호학과 | 우리은행 |
| | | 이광희 간호학과(원) | 중소기업은행 |
| | | 이미화 | 오백만 원 이상 |
| | | 이민영 | 천만 원 미만 |
| | | | (재)백은백합재단 |
| | | | (재)보건장학회 |
| | | | (재)우석문화재단 |
| | | | (재)케이티그룹 희망나눔재단 |
| | | | (재)한국방정환재단 |
| | | | (주)현대건축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

| | | | |
|--------------------|---------------------------------|---------------|--------------|
| 백만 원 이상 | 백만 원 이상 | 김규희 | 오현석 |
| 오백만 원 미만 | 오백만 원 미만 | 김만덕 | 온바이소이 |
| (재)서도장학재단 | (재)삼일문화재단 | 김문주 | 유성훈 |
| (재)세이해암학술 장학재단 | (재)해성문화재단 | 김미라 | 이경숙 |
| (재)유남장학회 | (주)덕신하우징 | 김미자 | 이귀혁 |
| (재)해강대성장학회 | (주)보은금속 | 김반삼 | 이규봉 |
| (주)보광아이엔티 | 김규룡 | 김수자 | 이미향 |
| (주)서한 | 김은희 | 김숙희 | 이민구 |
| 이희화 | 김일현 | 김신숙 | 이병욱 |
| | 동명 | 김신우 | 이세영 |
| 오십만 원 이상 | 박규용 | 김연옥 | 이소자 |
| 백만 원 미만 | 사단법인 박동준기금사업회 | 김영란 | 이승이 |
| (사이키데미아 후마나 | 신호균 | 김옥희 | 이승호 |
| 계명후원회 | 안광호 | 김원웅 | 이영수 |
| 백만 원 이상 | 이경행 | 김정화 계명문화대학교 | 이은령 |
| 오백만 원 미만 | 장동희 | 김정화 대구 총부생 | 이은방 |
| (주)에이더블유포털 | 진미경 | 김정희 대구시 북구 학동 | 이은정 |
| 오십만 원 이상 | 정병춘 | 김정희 대구시 북구 학동 | 이은주 |
| 백만 원 미만 | 주식회사 동우에이스건축사사무소 | 김정희 대구시 북구 학동 | 이인성 |
| 뉴부천식당 | 주식회사 동우에이스건축사사무소 | 김태수 | 이재우 |
| 대구경북양돈농협 | 주식회사 와이랩 | 김태수 | 이정희 |
| 아방궁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김현미 | 이지선 |
| 주식회사 최정자 | 최광우 | 나혜민 | 이현숙 |
| 슬기로운마트생활 | 최정자 | 남숙경 | 이효신 |
| 삼십만 원 이상 | 하승옥 | 노경우 | 임수빈 |
| 오십만 원 미만 | 황현숙 | 리철웅 | 임원택 |
| 도도플라워 | 오십만 원 이상 | 문복선 | 임재호 |
| 성서제능이버섯농이백숙 | 백만 원 미만 | 민승경 | 장건우 |
| 유기초밥 |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 연구원 일동 | 민우정 | 장성진 |
| 일억 원 이상 | 김인숙 | 민자 | 장영희 주동행교회 |
| 일억 원 미만 | 남원호 | 박기령 | 장영희 계명 74 동문 |
| (재)한국장학재단 | 박인숙 | 박명숙 | 장주이 |
| (주)케이엠에프 | 박재한 | 박미선 | 전재문 |
| 삼보모터스(주) | 윤상애 | 박상숙 | 박재한 |
| 삼보프라텍 주식회사 | 의성제일교회 | 박선애 | 박상숙 |
| 천만 원 이상 | 이기봉 | 박선미 | 박선애 |
| 오천만 원 미만 | 이민식 | 박수희 | 박선미 |
| (주)화신 | 이브센스 | 박순례 | 박수희 |
| 천만 원 이상 | 주식회사 안다르 | 박예린 | 박예린 |
| 오천만 원 미만 | 최심애 | 박인덕 | 박예린 |
| (주)국민은행 | 현부옥 | 박재환 | 박재환 |
| (주)신한정밀 | 삼십만 원 이상 | 박정선 | 박정선 |
| 건축사사무소 진승건축 | 오십만 원 미만 | 박해선 | 박해선 |
| 계명대학교 동문교수장학회 | (주)위드코퍼레이션 | 박혜인 | 박혜인 |
| (주)삼한씨원 | 김상진 | 배소현 | 배소현 |
| 주식회사 케이씨리아이 | 문인규 | 박영순 | 박영순 |
| 오백만 원 이상 | 박영숙 | 백영숙 | 백영숙 |
| 천만 원 미만 | 에프아이스튜디오 | 이동복 | 에프아이스튜디오 |
| (재)백은백합재단 | 이동복 | 주식회사 상원 | 주식회사 상원 |
| (재)보건장학회 | 홍점자 | 성진호 | 성진호 |
| (재)우석문화재단 | 삼십만 원 미만 | 손홍식 | 손홍식 |
| (재)케이티그룹 희망나눔재단 | 강성우 | 구문의 | 구문의 |
| (재)한국방정환재단 | 김민주 | 권영미 | 권영미 |
| (주)현대건축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 박원호 | 권희이 | 권희이 |
| | 양원선재단 (YANG WON SUN FOUNDATION) | 김경배 | 김경배 |
| | | 김경혜 | 김경혜 |

현물 기증

| | |
|-------------------|-----|
| 냉난방기 1대 기부 | 박세진 |
| 주식 기부 | 조치흠 |
| | 한진협 |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후원은 세계를 향해 빛을 열어가는 계명대학교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 기금조성 동문, 기업, 기관, 교내구성원 등 * 기금운용 장학금, 학과발전기금으로 활용

후학사랑 기금 조성

선각자들의 헌신과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금의 계명대학교를 일구었습니다. 후학사랑 기금 조성으로 후학들과 학교, 학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키우고 사람을 가르치는 따뜻한 마음을 후학사랑 기금으로 일구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목적 장학금, 학과발전기금

계명더하기 장학기금 조성

5,000만 원 이상 장학금을 기부한 기부자의 뜻을 높여 기부금액에 100% 매칭자금을 더해 기부자 명의의 '계명더하기'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 기금 목적 장학금

6·25 참전국 출신 학생 교육지원기금 조성

6·25 전쟁 발발 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세계 63개국에서 병력과 의료, 물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지금의 발전한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지원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계명대학교를 찾는 6·25 참전국 출신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목적 6.25 참전국 출신 외국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학업유지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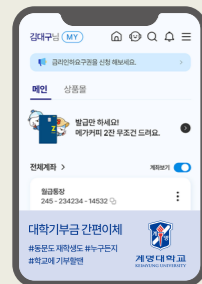
고려인 출신 학생 교육지원기금 조성

연해주에 터전을 잡았던 약 17만 5,000여 명의 고려인들은 1937년 옛 소련의 가혹한 분리·차별 정책으로 정착지에서 쫓겨나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려인 강제이주를 상기하면서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려인 출신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을 통해 고국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목적 고려인 출신 외국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학업유지비 지원

발전기금 납부방법

• 모바일 간편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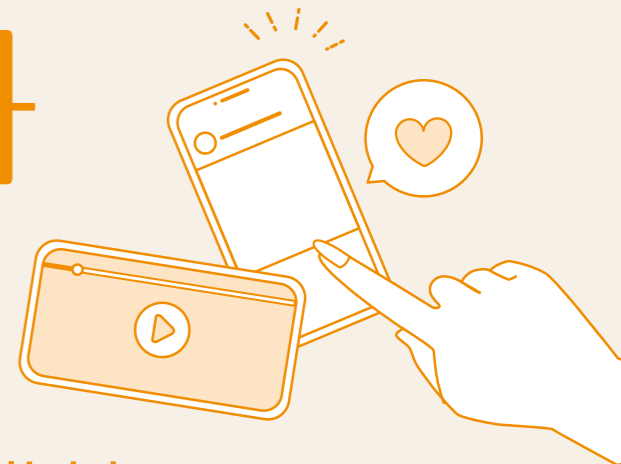
- iM뱅크 어플 다운로드 및 로그인
- 전체메뉴 > 이체 > 보내기 > 대학기부금이체 선택
- 간단 정보 및 기부금액 입력
- 기부금 이체 완료

- **직접 납부** 대외홍보팀으로 현금 직접 납부 또는 지정된 계좌로 송금 (iM뱅크 086-04-000434-7) (우리은행 1006-601-275545)
- **CMS 이체** 기부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지정된 날짜(15일 또는 30일)에 자동인출
- **유산기부신탁** 계명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전문 신탁증권을 통한 기부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관 220호 대외홍보팀

TEL 053-580-6323 FAX 053-715-2014 E-mail 70270@kmu.ac.kr Homepage http://funds.kmu.ac.kr/funds/index.do

언제 어디서나 계명의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계명대학교의 다양한 SNS를 소개합니다-

#캠퍼스라이프 #동아리 #겨울방학 #대외활동 #계대맛집 #수강신청

계명대학교 공식 SNS 채널에서는?

학교의 대내외 다양한 소식, 행사 후기, 동아리 소개, 대외활동, 장학금 안내, 신입생 학교 이용 꿀팁, 재학생 브이로그 등 재미난 콘텐츠들이 가득하니 언제나 구경해 보세요!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지켜온 125년의 큰빛
비상할 125년의 계명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